IT 벤처 **러시아 수출계약 5300만불** 성사

협회, 'SVIAZ Expocomm Moscow 2006' 성공적 마무리

1 벤처기업협회(KOVA) 한국관 부스 전경 2 엔컴퓨팅(대표 송영길)을 방문한 현지 바이어 3 현지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넷피아(대표 이병훈) 부스 전경 4 가장 많은 방문객을 이끈 일신테크(대표 권혁운) 상담 부스 5 다산네트웍스(대표 남민우)를 찾은 현지 바이어 6 한국관을 찾아 협회 진행자와 참가 기업을 격려하는 최홍건 중기특위 위원장

협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중소 벤처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정보통신 전시회 행사 'SVIAZ Expocomm Moscow 2006'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관에 참여한13개 벤처기업은 총 5,30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한국 정보통신 시장의 위상과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벤처기업협회 공동관에 참가한 현대아이티(대표 안병선)는 러시아 현지의 RAMEC사와 공동으로 LCD TV 생산을 합의하여 4천만불의 신규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행사기간동안 현지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받은 일신테크(대표 권혁운)는 광케이블 가공장비를 선보여 100만불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외 MP3플레이어를 생산하는 다인텔레콤(대표 이상용)과 무선주문시스템을 선보인 안우포스(대표 김태순) 또한 현지 대형유통업체 및 주요 바이어와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져 대규모 계약이 예상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러시아 시장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협회는 올해 하반기 중에 러시아 시장 진출의 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지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모스크바 중심가인 레닌스키가에 '상설 쇼룸(Moscow, Korea IT Gallery)'을 개소할 예정이다.

'SVIAZ Expocomm Moscow 2006' 행사에는 전 세계 33개국에서 872개 업체가 참가하고 러시아 국내외에서 7만여 명의 참관객이 다녀가 성공리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독일을 비롯한 7개국에서 대규모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제50회 **벤처포럼** 개최

한국 벤처 산업 10년사를 갈무리하다

1 제50회 벤처포럼에 참석한 벤처 인사들
2 주제 발표를 하는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고문
3 한국 벤처 10년을 갈무리하는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
4 벤처포럼이 진행된 행사장 전경

지난 5월 9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 벤처 10년, 정리와 전망'을 주제로 제 50회 벤처포럼이 열렸다. 벤처기업협회와 벤처캐피탈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전자신문, 벤처포럼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벤처포럼 50회를 기념한 특별 세미나로 국내 유수의 벤처 인사들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냈다.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고문이 '한국 벤처기업의 태동과 성장'에 대해 주제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조현정 벤처기업협회장, 곽성신 코스닥시장본부장, 임주환 ETRI 원장 등이 우리나라 벤처 산업의 흐름과 문제점, 발전 전략 및 정부의 지원 정책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철상 VK 대표가 자사를 사례로 벤처기업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구본천 LG벤처투자 대표이사와 정종태 이노와이어리스 대표, 황기수 코아로직 대표 등이 세계 시장을 겨냥한 벤처기업의 투자 방향과 성공 사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효율화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미래 기술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35개 국가출연연구기관별로 세계 최고를 지향할 '톱 브랜드'를 발굴한 후 전문연구사업과 기관고유사업 등에 연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 벤처산업의 지난 10년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벤처포럼은 이현재 중소기업청장과 조현정 회장의 축사에 이은 간편한 리셉션으로 마무리 되었다.